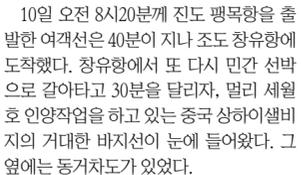


# 유족들 산꼭대기 움막생활하며 인양작업 감시 또 감시

**르포**  
세월호 '진실' 기다리는  
진도 동거차도 가 보니



10일 오전 8시20분께 진도 팽목항을 출발한 여객선은 40분이 지나 조도 장유항에 도착했다. 장유항에서 또 다시 민간 선박으로 갈아타고 30분을 달리자, 멀리 세월호 인양작업을 하고 있는 중국 상하이선비지의 거대한 바지선이 눈에 들어왔다. 그 옆에는 동거차도가 있었다.

말없이 민간 선박을 몰던 조도 주민 김채호(62)씨가 바지선을 보자 입을 열었다. “그날도 딱 오늘 같은 날이었지. 파도는 잔잔했으니까.” 잔잔한 바다가 세월호와 함께 304명을 집어삼킨 2년 전 4월16일 김씨도 다른 주민들과 함께 배를 몰고 세월호 사건 해역을 찾았던 터였다. 김씨는 바람도 없고, 평온하기 그지없던 그날 현장을 보고도 그 큰배가 침몰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고 했다.

10여 분 뒤인 오전 10시께 동거차도 선착장에 도착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의 아버지들은 인양 작업이 시작된 지난해 9월부터 이곳 동거차도에 머물고 있다. 단원고 2학년 1반부터 10반까지 반별로 희생된 학생들의 아버지 4~5명이 1주일씩 돌아가며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 바지선 탑승을 요구했지만 일언지하에 묵살당하고 선택한 곳이 동거차도였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볼 수 있는 장소여서다.

노란 리본이 곳곳에 묶여 있는 좁은 산길을 20여 분간 따라 걸자 산꼭대기에 다다랐다. 산길 중간 동백숲에 애처롭게 떨어져 있는 동백꽃들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떠올리게 했다. 정상에 오르자 멀리 세월호 인양 현상이 한눈에 들어왔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만 같은 거리, 불과 1.5km 떨어진 곳에서 피지도 못한 꽃들은 그렇게 하늘나라로 떠났다.

정상에는 천막 세 동이 놓여있었다. 파란색의 허름한 천막은 지난해부터 사용해 온 움막형태의 감시초소이고, 하얀색 텐트 두 동은 20여 일 전 자원봉사자들이 유가족들을 위해 설치해준 것이다.

벌써 세번째 동거차도를 찾은 윤민양의 아버지 최성용(55)씨는 “지난 겨울 유난히 따뜻했다고 하지만 이곳에서 칼바람과 맞서 싸우며 보낸 겨울은 고생의 연속이었다”며 “해도 일찍 떨어지고 기나긴 밤과 추위를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며 이겨냈다”고 말했다.

이들의 일과는 오직 하나. 인양 현장을 감시하고, 또 감시하는 것이다. 망원렌즈

바지선 탑승 거절되자 선택  
4~5명씩 일주일간 머물러  
감시 내용 시간대별로 기록  
즉석밥·참치캔 끼니 해결  
“아이들 생각에 가슴 미어져”

가 달린 카메라로 바지선과 선박의 움직임을 촬영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4~16 가족협의회에 보고한다. 4·16가족협의회는 해양수산부에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하지만 쉽지 않다. 이곳 동거차도에서 인양 현장을 감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도 아버지들은 이곳에서 그곳을 하염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다.

예진양의 아버지 정종만(49)씨는 몇 개월을 망설이다가 지난 8일 처음으로 동거차도를 찾았다. 현장을 다시 본다는 게 두려웠지만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용기를 냈다. 언덕에 올라서니 눈물부터 흘렸다. 정씨는 “이곳에 서서 현장을 보는데 망망대해가 아니라 섬 앞바다인 것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며 “되신 명령만 제대로 했더라도 구명조끼를 입은 아이들이 조류에 밀려 이곳까지 왔을 것”이라며 울먹였다.

바지선에 실린 크레인이나 움직이자 정씨는 곧장 망원경을 들고 또 바다를 바라봤다. 동거차도에 들어와 처음 작성한 ‘일일 상황 보고서’에는 ‘보령호 기름 보충 위해 서방향 이동’ ‘센첸호 바지선 옆으로 이동’ ‘안개로 시야 확보 안 됨’ 등 내용이 시간대별로 기록돼 있었다.

아침 일찍 인양 현장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걸어서 20여 분 거리의 갯바위까지 내려갔던 예슬양의 아버지 박종범(50)씨는 점심 무렵 쓰레기를 한 줄 집어 들고 초소로 돌아왔다. 박씨는 “아이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섬을 봤을 것이고, 그래서 얼마나 안심했겠느냐”며 “아이들이 창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어른들에게 듣고 가슴이 미어졌다”고 했다.

소연양의 아버지 김진철(58)씨를 포함한 유가족 4명과 자원봉사자 4명 등 모두 8명은 오는 15일까지 이곳에 머물다 다른 팀과 교대할 예정이다. 끼니는 대부분 즉석밥과 참치캔 등으로 해결한다. 그나마 이번 팀의 형편은 나은 편이다. 윤민양의 아버지가 “먹어야 싸울 수 있다”라며 지게에 부식을 한 짐 짊어지고 와 세끼 모두 따뜻한 쌀밥을 먹고 있기 때문이다.

예진양의 아버지는 “누가 좋아서 여기까지 와서 현장을 보겠느냐”며 “사고라면 이렇게 안 하겠지만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사건’이기에 부모들은 이렇게까지라도 할 수밖에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동거차도=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진도=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예진양의 아버지 정종만(49)씨가 10일 진도 동거차도 언덕에 있는 감시초소 앞에서 망원경으로 세월호 인양작업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9일 진도군 임회면 무궁화동산에서 열린 ‘세월호 기억의 숲’ 완공 행사에 참가한 세월호 유가족과 추모객들이 ‘기억의 벽’ 앞에서 추모 메시지를 쓰고 있다.

## “이 은행나무처럼 천년만년 엄마·아빠 마음속에 살아 있단다”

‘세월호 기억의 숲’ 완공 기념식  
유족들 추모 편지 읽으며 울컥  
오드리 험편 손자·손녀도 참석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엄마, 아빠 품을 떠나 잘 지내고 있는 거니? 엄마, 아빠 한 번만 불러 주면 안 되겠니? ... 슬픔이, 그리움이 가슴을 짓누르며 숨을 쉬지도 못하는 엄마, 아빠에게 오늘날은 너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바람으로, 따라서 온 햇볕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로 우리들 곁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지난 9일 진도군 회진면에서 열린 ‘세월호 기억의 숲’ 완공 기념식에서 세월호 참

사로 희생된 단원고 2학년 김도연양의 어머니 이지성(45)씨가 편지를 읽어 내려가자 가족들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토해냈다. 그토록 참으려고 했던 눈물이지만 2년 전 4월16일이 생각나 울컥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이날 회진면 백동 무궁화동산에서 열린 ‘세월호 기억의 숲’ 완공식에는 오드리 험편의 가족을 비롯해 세월호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 숲 조성을 진행한 트리플레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유가족들도 이날은 세월호 참사를 상징하는 노란 옷 대신 ‘생명’과 ‘희망’을 상징하는 녹색 티로 같이 입었다.

관려기자 22면  
팽목항과 약 1.4km 거리에 있는 ‘세월호

기억의 숲’에는 300여그루의 은행나무가 심어졌다. 천년을 사는 은행나무는 영원히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매년 가을이면 세월호 참사를 상징하는 노란 단풍이 일대를 물들이게 된다. 또 한쪽에는 희생자 304명의 이름이 각인된 조형물 ‘기억의 벽’이 놓였다.

은행나무에는 ‘푸르고 예쁜 나무로 다시 엄마, 아빠 곁으로 와 주어서 정말 고맙고 기쁘다’ ‘비록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이 은행나무처럼 천년만년 영원히 엄마, 아빠 마음속에 살아 있어’ 등 유가족들이 떠난 가족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들이 걸렸다.

진도=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진도=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

## 가출 잦은 아들 때린 엄마 아동학대 혐의 무죄 선고

가출이 잦은 17세 아들을 때린 아동학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40대 엄마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종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30일 절도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가출 아들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여·47)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아들을 때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이 상습 가출하고, 절도를 저지르고,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데 격분해 정당한 훈육의 범주를 벗어나 때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아들의 건강과 발달을 해지거나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들은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가출한 횟수만 13회에 이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술자리서 지인 폭행치사

광주서부경찰은 10일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이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양동의 한 거리에서 오모(55)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수차례 손과 발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오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모델서 부탄가스 흡입하다 “황

○...광주의 한 모델 객실에서 휴대용 부탄가스를 흡입하던 20대 여성이 밀폐된 객실 안에 뿌려둔 부탄가스가 폭발하면서 병원 신세.

○10일 광주서부경찰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새벽 2시50분께 서구 농성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황’하는 폭발음이 들려 종업원이 달려가 보니 A(여·28)씨가 얼굴과 손 등에 가벼운 화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다는 것.

○남자친구와 함께 투숙한 A씨는 “부탄가스 2통을 방안에 뿌린 뒤 흡입, 환각 상태에 빠진 뒤 담뱃불을 붙이려고 라이터를 켜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고 경찰에 진술하며 선처를 호소했는데, 경찰은 “불법 사실이 확인된 만큼 A씨와 함께 투숙했다가 사고 직후 달아난 남성 모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지리산, 온천지구내 호텔급-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 세미나실 / 객실, 2~4층 - 객실
-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용 6억3천만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10억(일시불 대폭 조정가능)
- 리모델링 후 20억 이상 매매 가능

**산수유/벚꽃축제,수학여행,여름휴가, 등산객 등등 리모델링 (4억)후 연 5억 이상 순수익 가능!**

주인직매 H. 010-3605-5000

**대단위 APT 밀집지역**

### 근린상가

주인직매 H. 010-3605-5000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건물 중 701호(7층전체) 130평(실평 89평)
- 대형주차장, 4면유리, 전망최고
- 감정 / 시세 - 7억
- 매매 - 5억 6천만원
- 용자 - 3억 6천만원 포함
- 현재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3백만원 임대중

대표 최선규  
H. 010-3605-5000